



## 돈보스코의 선교에 대한 꿈



**사** 랑 하 는  
선교사들,  
살레시오  
회원들 그리고  
살레시오 선교의  
모든 친구들!

총평의회 of 여름 회기 중에 로마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돈 보스코의 선교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이달에는 그분의 선교에 대한 두 번째 꿈을 재 발견 하도록 초청을 받습니다. 우리 창립자의 모든 꿈은 이 세상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생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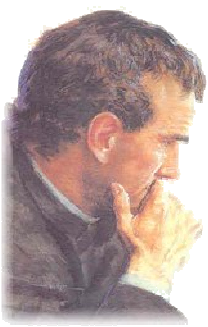
아마 모든 관구에 2011년 살레시오선교주일(DOMISAL)의 자료(DVD, 포스터, 자료들)들이 도착했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주제는 “복음 선포를 위한 자원 봉사”입니다. (자료들은 [www.sdb.org](http://www.sdb.org)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세상의 모든 살레시오 관구와 우리의 사목터에서 선교 그룹과 젊은 선교 봉사자들을 양성 하면서 돈

*Václav Černý*

클레멘트 바츨슬라브 SDB  
선교담당 평의원

선교에 대한 돈 보스코의 꿈들 중 하나인 (사실은 둘째) 이 꿈은 전 남미의 살레시오 선교의 미래에 대하여 상당히 우의적으로 소개 되었다. 서사시적으로 장엄한 미래, 돈 보스코의 사업에서 일할 사람들에 대한 예언 등을 통해 이는 그냥 인간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돈 보스코는 이 꿈을 1883년 9월 4일 총회의 오전 회기에서 이야기 했다. (정확한 자료는 MB 16권 385-398; [SDL.SDB.ORG](http://SDL.SDB.ORG)).



<< 나의 사랑스러운 젊은이 하고 말을 계속하시길: 자: 이 산들은 국경이고 끝처럼 보인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가 살레시오안들에게 제공된 땅이다. 수천 수백만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도움을 특히 신앙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산들은 남미의 산맥들이고 저 바다는 대서양이다. ... 어찌된 영문인지 나는 어떤 역에 내가 서 있고... 오는 기차를 탔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있는데. ... 기차는 다시 앞으로 향하여 계속 움직이기 시작한다. ... 숲을 지나고, 터널을 지나고, 무지 큰 고가교를 지나고, 산들로 둘레 싸이기 시작하고, 호수를 지나서 늪위의 다리를 거치고 강과 호수를 지나 초원과 평원을 달리고 있었다. 우리는 우루과이의 강가를 지났는데 나는 이 강이 짧다고 생각 했는데 오히려 아주 긴 강이었다.

이 시점에서 생각하니 파라나 강은 우루과이에 가까이 흐르고, ...기차는 계속해서 이쪽 저쪽으로 돌면서 아래로 아래로 달리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두 번째로 머물렀다. ...

기차는 또다시 팜파스와 파타고니아를 가로 질러 달리기 시작했다. 잘 경작된 밭들과 여기 저기에 산재해 있는 집들은 사람들이 이 광야에 살고 있다는 흔적이다.

파타고니아의 초입에서 콜로라도 강 혹은 추볼 강의 분지를 지났다. ... 마침내 마젤란 해협에 도착하여 해협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내렸고 우리 앞에는 아레나스 지점이 있었다. 나의 친구는 나에게 이게 전부라고 몸짓을 했고, 나는 물었다: -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나에게 대답하기를: - 지금은 이것이 꿈에 불과 하지만 어느 날 모두 이루어 질 것이다. 놀라운 가톨릭 교회의 성장과 우리 수도회와 이 지역의 사람들의 발전을 보면서 나는 당신의 영광과 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섭리에 부족한 나를 도구로 쓰신 것에 감사를 드렸다. ...>>





## 몽고에 도움의 손길을 주세요

**나**는 나의 선교사 꿈을 이루기 위해 몽고에 2009년 11월 14일에 도착했습니다. 오랫동안 선교사가 되는 꿈을 꾸어 왔기 때문에 나는 매우 행복했고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나는 나를 혼자 두지 않고 항상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도움이신 마리아의 도움으로 내가 선교사로서 내 생명을 다 할 때까지 예수님을 섬길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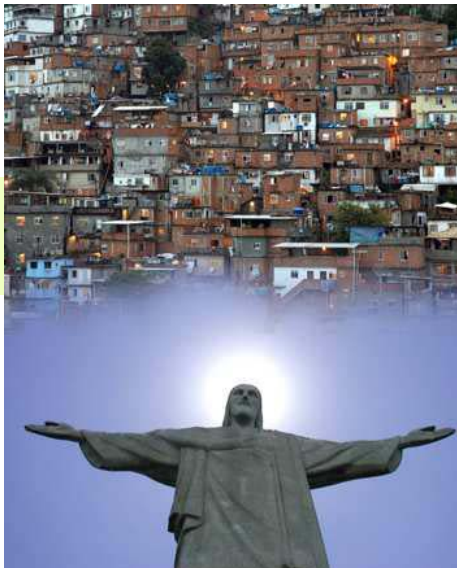
몽고에서 우리의 선교활동은 꿈과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돈 보스코가 자신의 꿈에서 몽고를 보았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울란바타르와 다르한에 두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울란바타르에는 4명의 살레시오 회원과 4명의 몽골 출신 협력자들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모든 회원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기술학교와 기술 센터에서 일합니다. 다르한 공동체 역시 4명의 회원이 있는데 모두들 본당과 비정규 학교와 인쇄소와 오라또리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몽고에 도착했을 때는 다른 공동체에 머물면서 몽고어를 배우며 주간 오라또리오에서 일하시는 크리스 수사님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달이 지난 후 울란바타르로 옮겨가 계속하여 언어를 배우며 21명의 거리의 소년들을 데리고 있는 돈보스코 센터에서 빅톨 신부님을 도우면서 아씨시텐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가족들은 들판에서 살고 있기에 연락이 되지 않는 형편이어서 우리 미씨스텐자 센터에 머물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아이들이 가족과 재결합할 수 있는 방법을 백방으로 찾고 있습니다.

나는 이곳 나의 선교지에서 매우 행복합니다. 여기에서 나는 순응성을 배웠고, 영혼 특별히 젊은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차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정신과 사목에 대하여 묻는 젊은이들이 생겨납니다. 그들 중 몇몇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도 나가고 오라또리오에도 옵니다. 돈 보스코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집이나 우리의 센터에 오는 아이들은 모두 성모님께서 보낸 이들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게 믿습니다. 복음 선포와 젊은이들을 돕기 위하여 다른 수도회와도 협력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문제는 젊은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몽고의 다른 장소에서 살레시오 집을 시작하기 위해 파견 할 회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몽고에 오십시오. 도움의 손길을 주십시오.



Anton Werun, 인도네시아인, 몽고 선교사.



## 살레시오 선교지향

### 중미 지역의 살레시오 가족

북미와 라틴 아메리카에서 일하는 살레시오 가족 멤버들이 젊은 이민자와 그 가족들을 잘 동행 할 수 있도록 기도 합니다.

사도 바오로시대부터 교회는 도시 선교에 투신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이민의 시대이다. 우리는 이 움직임을 직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예. 사도행전-코린토, 에페소, 아테네, ...)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쌍방향 이민이 형성된다. 남에서 북으로, 시골에서 도시로. 이민 첫 세대들은 여러 가지 도전을 경험한다.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사목자가 없는 경우에는 종교적인 면에서도 큰 도전을 받는다.